

미래를 위한 도전의 해로... 2008년을 오리의 해로!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7년 한 해도 우리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농·축산업은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과 한·EU협상, 한·중 간의 FTA 공동연구 등 새로운 도전과 격랑 속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17차 정기총회 회장 개회사〉



“ 지난해의 발걸음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 비전을 향해 힘찬 땀 박질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2008년 올해는 모두에게 변화의 해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긍정적 변화, 양성적 변화, 진실적 변화, 미래지향적 변화 등 모든 것과 행복을 동반자로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가기를 마음속에 담아 둡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50%는 얻고 시작하시니, 좋은 기회가 앞에 와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결실이 오더라도 나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니 오리농가들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기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7
년 한 해도 우리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농·
축산업은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과 한·EU협상, 한·
중 간의 FTA 공동연구 등 새로운 도전과 격랑 속에서
우리 농수축산물도 다시 한 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국
내 오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
력을 해온 한해였습니다.

특히, 종오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종
오리 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오리고기 소비홍보 촉진을 위한 오리 자조금 사업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만다행으로 AI 발생 없이 무사히 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역활동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협회가 추진해온 사업과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또
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서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리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글로벌 시대
의 개방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한해가 될 것

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
하고 재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08년도
에 오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 대중화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 첫째,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산업성장을
위해 오리 자조금 사업을 작년에 이어 규모
를 늘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대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농정활
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여
오리 산업발전 도모와 함께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원종오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과 종오리 등록제 및 데이터베이스 사업
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 회원 지도·지원 사업 및 조
사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오리 산업이 더욱 발전
되고, 협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전 회원의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합
니다.

저 자신 또한 남은 임기 1년을 오리 산업 및 협회 발전
과 회원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
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시
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